

1/3/20

설교 제목: 율법을 지켜 행하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여호수아 23 장 1-16 절

- (수 23:1)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 (수 23:2)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 (수 23:3)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 (수 23:4)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 (수 23:5)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 (수 23:6)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 (수 23:7)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 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절관주** 출 23:13, 시 16:4, 렘 5:7
- (수 23:8)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절관주** 신 10:20, 신 11:22
- (수 23:9)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 (수 23:10) 너희 중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절관주** 사 3:31, 사 15:15
- (수 23:11)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수 23:12)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 (수 23:13)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절관주** 사 2:3, 왕상 11:4
- (수 23:14)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 (수 23:15)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 (수 23:16)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이들어 죽음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가 그동안 동고동락 했던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고별사입니다.
유언이지요.

여호수아는 두 번의 고별사를 하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에게 합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시 불러 온 이스라엘 앞에서 두 번째 고별사를 합니다.

본문은 그 중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한 고별사입니다.

2021년 신년 첫 주일 예배 메시지가 유언이라니 얼핏 생각하면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유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유언이야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지침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언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세상에 남겨지는 사랑하는 자손들의 앞날을 염려하며 그들에게 남긴 앞으로 세상 살면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언급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의 유언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중요한 삶의 지침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사명,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 땅에서의 수명이 다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남겨지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입니다.

이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자니 걱정이 앞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들은 아주 특별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받은 여호수아는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생사를 같이 했습니다.

승리를 이루어냈을 때는 같이 환호했고 참패를 당했을 때는 서로 위로하며 동고동락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잘 정착하여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들이 영 못미답습니다.

이들에게 대쪽같은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긴 했지만 출애굽과 홍해 사건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2 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는데 혹시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과 어울리게 되면 큰일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400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한 후 또 40 년을 광야에서 헤매다 온 이스라엘 민족들과는 달리 이미 오래 전부터 가나안 땅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나름대로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고 각각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과 어울리는 날에는 쉽게 그들의 문화에 동화하게 되고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고심 끝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 약 20 년 정도 세월이 흘렀을 때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쳤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약 90 세 정도였고 110 세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불러 모은 장소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여호수아가 기업 분배를 모두 마친 후 행전 전반을 대표자들에게 위임하고 여생을 보내고 있었던 딘낫 세라이나 성막이 있던 실로였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수 23:1)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수 23:2)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해 친히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그들을 진멸시키신 일을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도 언급합니다.

아직 쫓아내지 못하여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수 23:3)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수 23:4)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수 23:5)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요단 강에서부터 서쪽 지중해까지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지만 그 땅도 이스라엘 손에 부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까지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정복하지 못하여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이 그 일에도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그 땅을 쳐서 취하면 됩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선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삶의 지침을 줍니다.

그것은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수 23:6)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지켜 행하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자신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지도자 자리를 물려 받은 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 1:6)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 (수 1: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 (수 1: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 (수 1: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병력을 기르고 무기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신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행하며 살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대로
여호수아에게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난 확신에 찬 충고를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길 진심으로 바랐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들 중에 들어가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 (수 23:7)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 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수 23:8)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수 23:9)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수 23:10) 너희 중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수 23:11)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과 내왕하다가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으니 심사숙고하여 조심하라고 교훈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는 ‘깊이 삼가라’ ‘너희의 모든 심령으로 깊이 숙고하라’는 뜻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절대로 불순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수 23:12)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수 23:13)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율법은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멸망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은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고별사를 마칩니다.

(수 23:14)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수 23:15)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수 23:16)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와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 말은 죽음이 임박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평탄하고 험통한 길로 가게 되고 언약을 범하면 저주를 받고 멸망합니다.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 26:3)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레 26:4)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레 26:5)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레 26:6)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레 26:7)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얹드러질 것이라

(레 26:8)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얹드러질 것이며

(레 26:9)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레 26:14)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레 26:15)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레 26:16)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레 26:17)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2021 년 아니 평생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힘써 다 지켜 행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탄하고 험통한 복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